총선 후보등록 첫 날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67명 등록

광주 민주 7명·민생 6명·정의 6명·국가혁명배당금당 6명 내일 마감, 13일 열전 돌입…내달 2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국 회의원 후보자 등록 첫날인 26일 광주•전 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총 67명의 후보자 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선을 통과한 대 부분의 후보들이 이날 등록을 마쳤고, 민 생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정의당・노동당・민 중당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6시 현재 광주 8개 선거구에 33명, 전남 10개 선거구에 34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광주는 ▲동남갑 민생당 장병완, 국가혁 명배당금당 한기선 등 2명 ▲동남을 민주 당 이병훈, 민생당 박주선, 정의당 최만원, 무소속 김성환 등 4명, ▲서구갑 민주당 송 갑석, 미래통합당 주동식, 민생당 김명진, 민중당 김주업, 배당금당 김성호 등 5명 ▲ 서구을 민주당 양향자, 민생당 천정배, 정 의당 유종천, 배당금당 황윤 등 4명이다.

또 ▲북구갑 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이 승남, 배당금당 박현두, 무소속 김경진 등 4명 ▲북구을 민주당 이형석, 민생당 최경 환, 정의당 황순영, 민중당 윤민호, 무소속 노남수 등 5명 ▲광산갑 민주당 이용빈, 민 생당 김동철,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정희 성, 배당금당 오종민 등 5명 ▲광산을 민주 당 민형배, 정의당 김용재, 배당금당 김홍 섭, 노동당 이병훈 등 4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8개 선거구 에 7명이 등록을 했고, 미래통합당 1명, 민 생당 6명, 정의당 6명, 민중당 3명, 국가혁 명배당금당 6명, 무소속 3명이다.

전남은 ▲목포시 선거구는 민주당 김원 이, 통합당 황규원, 민생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등 4명 ▲여수갑 민주당 주철현, 무 소속 이용주 등 2명 ▲여수을 민주당 김회 재 후보가 등록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선거구에서는민 주당 소병철, 통합당 천하람, 정의당 강병 택, 민중당 김선동, 배당금당 정봉호, 무소 속 노관규 등 6명이 등록을 마쳤다.

순천·광양·곡성·구레을은 민주당 서동 용, 통합당 김창남, 정의당 이경자, 배당금 당 고주석, 무소속 김종수, 정인화 등 6명 이며, 나주·화순 선거구는 민주당 신정훈, 민중당 안주용 등 2명이 등록을 했다, 담양 ·함평·영광·장성 선거구는 민주당 이개호, 민생당 김연관, 우리공화당 김천식, 배당 금당 임태헌, 무소속 김선우 등 5명이, 고 흥·보성·장흥·강진은 민주당 김승남, 무소 속 김화진 등 2명이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민주당 서삼 석, 민생당 이윤석, 무소속 임흥빈 등 3명 이,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민주당 윤재 갑, 민생당 윤영일, 배당금당 강상범 등 3 명이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에서 10명 모두 등록했 고 통합당 3명, 민생당 4명, 정의당 3명, 민중당 2명, 국가혁명배당금당 4명, 우리 공화당 1명, 무소속 7명이다. 전남에서만 이날 하루 모두 3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27일 오후 6시 까지 마감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 시작되며, 여야 각 정당의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13일 간 열전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명부 작 성은 오는 24일부터 시작해 4월3일 최종 인원을 확정한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선상투표 신고, 거소·선상투 표 신고인명부 작성이 이뤄지고, 군인 등 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신청 절차가 진행된 다.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이거 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 자는 이 기간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투표 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 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투표는 4월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진행된다. 이번 총선은 선거연령을 낮춘 공직선거법 에 따라 만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선상투표를 진 행하고, 4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를 할 수 있다. 본선거인 4월15일 유권자 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즉시 이뤄진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선거에 복 잡한 산식이 반영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가 적용된 만큼 각 정당이 확보하는 의 석수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들은 총선 이후인 내달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14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전이 마무리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지자체 최초로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중기 고용유지 지원금 광주는 100% 지급

정부 90%에 市에서 10% 더해 '해고 막기' …사업주 부담 없애

광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근로 자 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 부담 고용유 지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전액 지급 조치는 전국 자치 단체 중 광주시가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부터 고용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와 연동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휴업·휴직 수당 형태의 임금(하루 최 대 6만6000~7만원) 중 고용노동부가 지 원하는 90%를 제외한 나머지다. 지원 상한액은 일반업종의 경우 1일 기

준 6만6000원,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 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 공연업)은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월 휴업·휴직 수당으로 70%인 140만원을 사 업주로부터 받게 될 경우 고용청에서 126 만원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14만원은 광주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4~6월이며 대상은 1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광주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100 억원을 반영했다.

지원절차는 사업주가 고용청에 신청서 를 제출하면, 휴업·휴직 조치와 함께 고용 유지(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고 용청)→지급결정(고용청)→사업주 부담 금 추가 지원(광주시) 방식이다.

다만 재원이 한정된 탓에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 방침을 정하고, 기업당 50명 한 도로 제한했다.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내 용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광주고용복지+ 센터(062-609-8500)로 문의 하면 된다.

이용섭 시장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 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임금 부 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지원은 실직을 예방하는 것이고, 최고의 지역 경제 안정 대책은 기업이 어 려울 때 해고 없이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특레보증, 공공요금 동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 긴급 생계자금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대통령, G20 정상회의…방역협력·경제위기 '국제공조'

코로나19 지원 요청 쇄도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각국 정 상과의 직접 소통으로 정상외교에 나서면 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에 심혈을 기 울이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외 국이 잇따라 호평을 내놓는 가운데 방역 모 범국으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의 위상을 높일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세계적 경기침체를 막는 데 필요한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한 이 래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중국을 시작 으로 아랍에미리트·이집트·터키·프랑스· 스웨덴·스페인·사우디아라비아·미국에 이 어 캐나다까지 10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 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활발하게 정상들 과 소통하는 배경에는 우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응이 높게 평가받는 점이 자리한

코로나19 대응국면의 초반에 중국인 입 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데 대한 비 판이 거셌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전 국민적 협조와 정확한 진단 능력으로 상 황을 관리한 것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코로 나19 대응을 두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13일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전날까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 입을 문의하거나 요청한 국가가 47개국에 이르는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방역 물품의 해외 지원 및 수출 관련 업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까지 꾸릴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문 대통령이 국경을 넘은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하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통화에 서 제안한 G20(주요 20개국) 특별화상정 상회의가 26일에 개최되는 것도 '방역 모 범국가'라는 자신감을 토대로 주도적인 행 동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지지도 52.5%…1년 4개월만에 최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 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25 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8명을 대 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 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다시 3.2%포인트 오른 52.5%(매우 잘함 긍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평가 50%대를 회복하며 1년 4개월 만에 최 33.3%, 잘하는 편 19.3%)로 나타났다.

> 이는 2018년 11월 2주차 조사에서 53.7%를 보인 이후 1년 4개월만에 최 고치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50% 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첫째주의 50.4%를 기록한 이후 약 7개월만이다.

>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내린 44.1%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를 넘어선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7개 월만이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대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적인 평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 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 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